

김영록 “30년만의 전남 의대 설립 기회 꼭 살려야”

‘도민께 드리는 호소문’ 발표

공모 방식 통한 대학 선정 ‘최선’ 의대 미선정 지역 보완대책 마련 국회의원 당선자 동·서 갈등 양상 “지자체·정치권, 하나된 목소리를”



공모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 김영록(사진) 전남도지사가 “전남 의대 신설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동·서부권 지역간 대학은 물론, 정치권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30년 숙원의 ‘전남 의대 유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간 화합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영록 지사는 17일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도민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추천 대학 공모 과정을 비롯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보완책 등을 설명하고 “지역 간 과도한 경쟁을 자제, 의대 설립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김 지사는 “국립 의대 설립은 30년 만에 얻어낸 기회로 꼭 살려야 한다”며 “지금처럼 지역 내 논쟁과 대립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정부와 의료계의 협의 과정에서 국립 의대 신설 문제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전남 의과대학 설립은 정부 의대 증원 일정과 맞물려 돌아가는 긴박한 상황이기에 의대 신설 방침과 계획을 신속히 확정해 정부에 추천해야 했고, 공모 방식을 통해 추천 대학을 선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 생각한다”면서 공모 철회 요구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추천 대학 공모에 참여하지 않고 교육부에 직접 희망대학을 신청하겠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적합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김 지사는 “교육부가 공모방침을 밝히지도 않았음은 물론, 정부가 직접 신청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만무하다”며 “정부가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전남도에서 (대학을) 선정해 신청하도록 했고, 법률 전문가의 자문 결과 전남도의 공모절차를 통한 추천대학 선정이 적법 타당하고 가능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공정한 공모 절차와 기관 선정, 차후 의과대학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의 도민 건강권과 균형 발전을 위한 보완 대책 등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전남도는 추천 대학 선정까지 4~5개월, 이를 위한 공모기관 선정까지는 최소한 달여가 걸릴 것이라고 예측하고 내년 5월로 예정된 2026학년도 대학 입시 요강 발표 전까지는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일 전남도가 국립 의대 유치 대학을 공모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은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후보대학인 순천대와 목포대는 물론, 동·서부권 정치권까지 각자 지역의 입장을 강조하며 갈등이 고조돼 왔다.

발표 직후 공모 방식에 대해 반발했던 목포대의 경우 지난 16일 “최선을 다해 공모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순천대는 이날 전남도의 공모에 사실상 불응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전남도의 방식에 제동을 걸었다. 순천대 측은 이 같은 입장이 노관규 순천시장, 정병희 순천시의회 의장, 김문수 순천광역곡성구례갑 국회의원 당선인 등과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목표와 순천 등 동·서부권 정치권은 전남 의대 유치를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15일 전남일보 주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전남 당선자 교류회에서 도 지역구 당선자 간 신경전이 벌어졌을 정도다.

2면에 계속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민주커뮤니티센터 개관식 지방문 윤상원 열사 기념사업회 이사장과 김인숙 윤상원 열사 어머니, 이상갑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과 정무창 시의회 의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민형배 국회의원, 박균택 국회의원 당선인 등이 17일 광산구 천동마을에서 ‘윤상원 기념관 및 주민 공동체 공간 천동마을 민주커뮤니티센터 개관식’을 갖고 수목으로 그린 윤 열사 일대기 기획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민주커뮤니티센터는 기획전시실과 상설전시공간, 마을 경로당과 회관 등으로 구성됐다. 나건호기자

무안공항 해외 이용객 급증... 활성화 ‘청신호’

1분기 13만3008명... 전년비 91% ↑ 중국·필리핀·라오스 등 정기선 운항 광주세관, 세관신고 시스템 등 개선

무안국제공항 해외 이용객 수가 1년새 90% 이상 증가하는 등 공항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17일 광주본부세관에 따르면 무안국제공항 해외 여행객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노선이 중단된 지 4년 만에 회복세에 들어서고 있다.

해외 여행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전체 이용객은 13만3008명으로, 지난해 1분기 6만9724명에 비해 91%나 급증했다. 하루 평균 1478명이 이용

할 방침이다. 김종덕 세관장은 “모바일 세관신고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세관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예상납부 세액까지 미리 알 수 있고 모바일 신고 후, 세금납부도 가능해 매우 편리하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해외여행객의 편의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세관신고서 의무 작성을 폐지하고 신고할 물품이 있는 여행자만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세관신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모바일 세관신고는 기존 종이신고서 없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면세범위(800달러) 초과 물품, 외화(1만달러 초과), 동식물 검역물품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무안국제공항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며 광주세관은 노년층 등의 신고편의를 위해 종이신고서 작성 도움 서비스와 함께 모바일 신고 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

할 방침이다. 김종덕 세관장은 “모바일 세관신고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세관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예상납부 세액까지 미리 알 수 있고 모바일 신고 후, 세금납부도 가능해 매우 편리하다”고 말했다.

한편 진에어, 제주항공은 이달부터 무안국제공항을 출발지로 하는 국내·국제 정기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노선은 △진에어 무안-제주(주 2회) △제주항공 무안-장가계(주 4회), 무안-연길(주 2회) 노선이다. 항공사별로 운항 시기는 다르지만 올 하반기 운항을 추가로 준비 중인 정기노선은 무안-마닐라, 무안-라오스 등 총 8개 노선이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

광주광역시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Gijep Gwangju win-win Job Foundation for Economy Promotion

광주광역시 1인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

사회보험료 지원받으세요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광주광역시 1인 자영업자 대상
고용보험료 20%, 산재보험료 50%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신청기간
고용 및 산재보험법에 따라 기(신규) 가입한 광주광역시 1인 자영업자	공고일 ~ 2024. 12. 31.
신청방법	문의처
광주기업지원시스템 온라인신청 (https://www.gjbizinfo.or.kr)	☎ 062-960-2679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보험 20%, 산재보험료 100%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신청기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광주소재 사업장	공고일 ~ 2024. 12. 31.
신청방법	문의처
광주기업지원시스템 온라인신청 (https://www.gjbizinfo.or.kr)	☎ 062-960-2679